

## 데카르트와 「칸트」의 忌日에 際하여

(二月 十一日 · 二月 十二日)

金斗憲

國際情勢는 바야흐로 그 風雲이 險惡하게 되었음은 識者의 注意에 남음이 있으려니와 그보다 더 뿌리 깊히 震動하는 文化의 危機는 이미 現代人의 두 렷한 意識이 된지 오래다. 어쨌든 이 內外 危機의 現象에는 階級의 對陣과 國家의 軋□이라는 두 事實이 잇슴을 누구나 否認치 못하리라. 그리하여 唯心論과 唯物論, 平和와 戰爭의 問題는 果然 現代人의 큰 苦悶거리가 되었다.

생각건대 物心의 論은 어느 時代에나 哲學的 課題가 되었스되 近世의 物心 二元論은 비로소 「데카르트」에 始作하였고, 人類의 平和는 이미 부르주아지즘이 오래되 近代의 國際 政局에 드러난 永久平和論은 곧 「칸트」에 始作하였다. 이 兩大 哲人의 忌日이 一日을 隔하여 歷史的 記錄을 남김은 奇異한 일이려니와 이미 二八六年前, 一三二年前에 이 二大 問題에 對하여 그 씨를 이 世上에 뿌렸것만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야 時代의 危機를 現出하였스매 그들의 □□은 자못 人類의 無智를 歎息하고 苦笑할 뿐일이라.

□近哲學의 傾向이 어느듯 非合理主義, 反觀念論의 色彩를 가지고 잇슴은 明瞭하다. 그러나 近世哲學이 「데카르트」의 이른바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存在한다.」(코기토 에르고 슴.)의 命題로써 비롯한 以來로 約 一世紀 동안 歐洲 大陸의 思想界를 支配하였고, 이어 「칸트」의 出現으로 말미암아 「데카르트」의 反對說을 併合하여 다시 「데카르트」의 理性中心의 哲學觀을 批判哲學으로서 大成하여 現代에까지 世界의 思想界에 君臨하였으니, 그들의 歷史的 地位가 至極히 尊大함은 勿論이오, 그들이 남긴 眞理의 合理性, 普遍性, 批判精神, 自我概念 等等이 그들에 反對論者에게까지도 큰 生命을 이루었음이 틀림 없으니, 이제 그들의 忌日에 際하여 그 歷史的 功納을 追慕하며 새로이 久遠의 眞理를 把持하여 참다운 人類의 向路를 밝히는 機會을 求한다면, 그 紀念의 □□가 없지 않을 것이다.

×

「루네·데카르트」는 一五九六年 三月 末日 佛蘭西 「토우레인」州 「라·헤이」의 名門에 태어났다. 그는 本來가 浦柳의 體質로써 일즉 貴族學校에서 「예수이트」派의 教育을 받았으며, 相當히 多□의 學科를 學習하였으나 그의 哲學的 天質에 큰 滿足을 줌이 없었고, 오즉 數學만은 적지 않은 關心을 갖게 하였었다. 그가 成人이 되자 當時 貴族社會의 慣習에 딸아- 「분트」에 依하면 當時에 가장 名譽스러운 社會的 地位가 軍人이었고, 名譽를 즐겨함은 佛蘭西 民族性의 特色이라 하니-軍人되기를 뜻하고, 二十二歲에 士官이 되어 義勇兵 으로서 和蘭에 從軍하였고, 이어 獨逸의 「바이에른」軍에 轉하여 皇帝의 旗下에 屬하였다. 一六一九年(二十四歲) 十二月 十日 南獨逸 「노이부르히」에 冬營할 때 忽然 學術研究의 方法에 對하여 깨달음이 있어 이웃고 退軍하여 歐洲 各地를 遊歷하고, 一六二三年 巴리에 돌아와 爾來 學究에 獻身하러 하였다. 그는 攻學의 뜻을 이루고져 一切 世事를 斷念하고 社會의 煩累를 蔽하여 和蘭의 閑地에 隱居한지 二十年에 達하고, 居處를 숨기기 爲하여 그동안 轉居한지 十三회에 至하였다 한다. 知友의 勸誘에 많아 一六三五年에 「方法論」을 비롯하여 光學, 氣象學, 幾何學의 論著를 모아 「哲學論集」을 出版한 바 果然 그 贊否의 世論은 자못 □□하였다. 이어 「哲學原論」, 「考察錄」의 著作을 내놓으자 和蘭에 생긴 論敵과의 煩累를 避하여 巴리에 돌아가고 말았다. 그 後로 瑞典女王 「크리스티-네」의 招聘을 받아 그 師傅가 되고, 兼하여 그곳 學事振興에 從事하던 中,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一六五〇年 二月 十一日 드디어 이곳에서 病沒하였다. 그는 平生 獨身으로 맞았다. 그는 貴族의 出身으로 生活手段에는 큰 困難이 업었는 듯하며, 또한 國際的인 哲人으로서 오즉 忠實한 好學의 士이였다. 「데카르트」는 近世 西洋哲學의 先驅요 理性論의 始祖이였다. 그는 數學의 論理가 確實함을 믿고 몸소 發見한 解釋幾何學의 方法을 哲學問題에 適用하였다. 그는 哲學的 思索을 의심(疑)에서 始作하여 마침내 自我의 存在를 確立하고, 明皙, 判명한 觀念의 實在를 把握하여 神의 存在를 說明하고, 本體를 物心 二體로 分하여 延長과 思惟를 屬性으로 삼았다. 이 物心二元은 各自 獨立의 作用을 이룬 것임에 感情의 作用에 對하여는 物心의 交涉을 假定하고 그 交涉이 腦髓 中の 松科腺에 이러남이라 하여 여기에 物理的 唯物論을 이루었고, 또한 物心交涉說에 關하여 偶因論을 導出하였다. 이른바 「데카르트」學派는 十七世紀 後半을 通하여 大陸思想의 큰 勢力을 일우었고, 이어 近世 哲學 上에 남긴 影響은 史上에 歷然한다.